



즉시 배포용: 2023년 9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최초의 주립 재향군인 묘지에 대한 연방 기금 수여 기념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 2023년 2월 주 소유권 전환

국립 묘지 관리청, 확장과 개선 자금 395만 1,000달러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재향군인 묘지인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New York State Veterans Cemetery – Finger Lakes)의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지사가 2023년 2월에 주립 묘지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가 다음 세대에 걸쳐 뉴욕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품위 있는 매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전용의 품위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묘지 건립은 우리 행정부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방 기금은 묘지가 정당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재향군인 서비스부에서 감독하는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는 세네카 카운티 로울루스의 세네카 레이크를 따라 162에이커에 달하며 Sampson State Park와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 뉴욕주의 영웅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개발 및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지는 147에이커에 달합니다. 묘역은 과거 Sampson Naval Training Station 및 Sampson Air Force Base 부지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2차 세계대전 및 한국 전쟁 당시 군인 수십만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이후 임시 대학 및 파견 군인 대기 장소로 사용되다가 2000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묘역은 독립기념일(Memorial Day)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한 워털루 인근에 위치합니다.

뉴욕주 재향군인부 Viviana DeCohe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봉사와 희생에 걸맞은 품위 있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는 복무한 모든

뉴욕 시민이 군 복무의 유산을 남긴 성스러운 땅에서 최종 영예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님과 세네카 카운티에 있는 이 묘지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애써주신 국립묘지관리청(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의 파트너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Chuck Schumer 미국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는 미국을 수호했던 수천 명의 미국 영웅들의 성스러운 땅입니다. 올해 초 재향군인 지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묘지 확장 및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저는 오늘 뉴욕 최초의 주립 재향군인 묘지에 대한 원래 연방 기금의 40% 이상 증액된 총 400만 달러를 전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향군인들은 우리의 자유를 수호했고, 이 기금은 우리 나라에 봉사한 용감한 남녀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마지막 안식처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봉사를 기릴 것입니다."

Joe Morell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위대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며, 그들은 그들의 봉사에 걸맞은 마지막 안식처에서 추모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의 발상지가 워털루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이 영예를 안기에 더 적합한 장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재향군인 묘지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이 정도 수준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우리 군대를 지지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네카 카운티 감독위원회 **Michael Enslow**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립묘지관리청에서 뉴욕주 로물루스의 세네카 카운티에 있는 주 최초의 재향군인 묘지에 391만 달러를 보조금 기금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기금을 통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재향군인들의 표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Kyle Lovell 세네카 카운티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물루스에 있는 뉴욕주 재향군인 묘지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391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자하여 미국의 영웅들을 기립니다. 국립묘지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이 후한 보조금은 재향군인들의 희생을 영원히 추모하고 그들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향군인을 기리기 위한 세네카 카운티의 지속적인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보조금은 뉴욕주 재향군인 묘지가 용맹과 명예로 미국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헌정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연방 기금은 국립묘지관리청이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뉴욕주에 280만 달러의 보조금 기회를 부여하면서 2022년에 시작된 프로세스의 정점입니다. NYS DVS는 세네카 카운티 및 NCA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연방 규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계획 단계에 이어 뉴욕주의

최종 보조금 지급액을 40% 이상 올려 3951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 자금은 콜럼바리움, 유지보수 건물, 유지보수 작업장 및 지원 인프라를 포함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에는 688,000명 이상의 재향군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Hochul 주지사 행정부가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를 설립하기 전까지 뉴욕주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향군인 묘지가 없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였습니다.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재향군인 묘지는 모든 적격 재향군인(연방법에 정의)과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 서비스국 소개

1945년부터 재향군인,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뉴욕주의 옹호 기관으로 활동해 온 뉴욕주 재향군인 서비스국은 미국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혜택 청구 및 이의신청,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 대한 제대 승급 이의신청, 뉴욕주 혜택 청구 등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서 모든 재향군인, 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 군인 및 군인 가족은 888-838-7697번으로 또는 해당 웹사이트(veterans.ny.gov)로 부서에 연락하여 공인 재향군인 혜택 고문과 직접 또는 가상으로 만나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받은 혜택을 모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DVS를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